

## 광주시 행정심판위 '수상한 판결'

감사원 '위법' 지적 매월등 고급주택단지 사업, 구청 반려에도 사업자 손 들어줘  
3차례 심리, 마지막엔 위원 대부분 교체하고 '인용' 의견 제시...배경에 뒷말 무성

### "강도높은 수사로 진상 규명" 목소리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감사원에서 '위법'을 지적한 고급주택단지 사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다.

광주시는 특히 신중한 판단 등을 이유로 행심위 심리를 3차례나 개최하면서도, 최종 제3차 심리에서 1·2차 심리 참석 위원 6명 중 5명을 교체했으며, 위원들에게 인용(사업자 승소) 의견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3일 광주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 행심위는 지난달 2일 지역 모 건설업체가 제기한 '서구청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에서 인용 재결하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행정심판 인용 재결 후 해당 사업이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 행위'를 지적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행심위 인용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매월동 일대 1만8000여㎡ 부지에 총 300억원대 규모의 단독주택 32채를 짓는 사업으로, 감사원은 지난 6월 먼저 건축허가를 받은 11채에 대해 "위법하게 건축허가가 났다"며 위법 상태 해소 및 당당 공무원 징계를 서구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도 개별 건축허가를 해주고, 견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판단했다.

서구청은 감사원 처분에 따라 관련 공무원 4명을 징계하고, 사업자와 건축사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기존 허가받은 11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서구청은 나머지 17채의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도 감사원 처분과 같은 견폐율·용적률 허위작성 정황을 발견하고, 건축 허가를 반려했다.

사업자측은 결국 17채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해 '직권남용'이라며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광주시 행심위는 감사원의 위법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의견을 인용했다.

서구청은 즉각 행심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댄스 챌린지 흥겨운 울동** 3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프리즈페스티벌에서 '100인의 예술에 댄스챌린지' 본선에 오른 시민들이 흥겨운 울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행정심판 특성상 청구인(국민)이 인용(승소)을 받으면 행정청은 항소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행심위 재결서(판결문)를 살펴보면, "서구청 직원의 부주의로 11건 건축허가를 내줬으므로 같은 단지 내 새로운 17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서구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다고 명시했다. 결국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신뢰보호에 따라 위법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행심위의 주장인 셈이다.

행심위는 여기에 더해 국민 권익구제 등도 거론하고 나섰다.

행심위는 "이번 사업 업무주관 부서인 도시재생과(과장 등 4명 징계)와 건축과(감사원 지적 수용 입장)의 입장이 서로 모순된다"며 "1개 행정청에서 다른 주장이 대립될 경우 국민 권익구제 등의 관점에서 청구인(사업자)에게 유리한(도시재생과의) 입장을 채택함이 옳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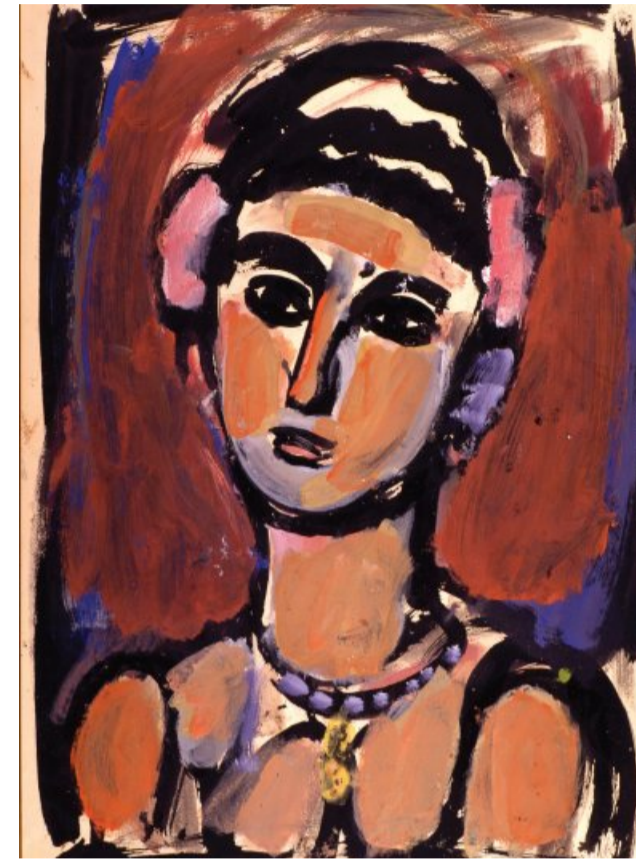
행심위는 감사원과 서구청 건축과 등이 지적한 설계도 내 대지 조성(건물의 지표면이 되는 지반 높이) 누락 등에 따른 견폐율·용적률 상한 초과 등에 대해서도 서구청 도시재생과의 기존 주장 등을 이유로 정면 반박했다.

행심위는 "도시재생과는 설계상 대지의 조성고가 존재한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기존에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견폐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건축과에서) 조성고가 없다고(사업자측에) 보안을 요구한 것 자체가, 애초 보장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며 서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2면으로 계속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알립니다

##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루드밀라(Ludmilla)  
1930·유채·과슈·73x50cm  
조르주 루오 재단 소장



조르주 루오

전남도립미술관·광주일보 주최  
10월 6일 ~ 2023년 1월 29일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 조르주 루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은 광주일보사는 전남도립미술관과 함께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전을 개최합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조르주 루오(1871~1958)는 특유의 격렬하고 자유분방한 선과 깊은 색상의 표현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해 나간 작가입니다. 20세기 유일한 종교 화가로 불리는 그는 성서나 종교적인 주제의 작품 뿐 아니라 사회의 약자였던 광대, 곡에서 등 삶과 전쟁의 비극속에 고통받는 인간들의 모습을 형상화해왔습니다.

모두 6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대표작 '미제레레(Miserere)'를 비롯해 '오렌지가 있는 정물' 등 프랑스 국립 폼피두 센터와 조르주 루오 재단에서 엄선한 유화, 판화 등 200여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또 루오가 사용했던 붓과 팔레트 등 유품도 함께 전시됩니다.

특히 연계전시 '조르주 루오와 한국미술' 전에서는 이중섭·구본웅·손상기 등 루오의 화풍이나 예술정신에 영향을 받은 작가 23명의 작품 50여점도 함께 선보입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광주일보 70 창간 70주년

- 일시 : 2022년 10월6일(목)~2023년 1월29일(일)
- 장소 : 전남도립미술관
- 주최 : 전남도립미술관, 광주일보, KBS광주방송총국
- 주관 : KBS BUSINESS, 두미르
- 협력 : 조르주 루오 재단, 프랑스 국립 폼피두 센터, 말랑그 갤러리
- 후원 : 주한프랑스대사관

光州日報社 · 전남도립미술관

**고졸** 조대부고 2022 조대부고인  
총동창회 어울림 한마당  
먹는 것 산이거든 무늬곤 못 가라!  
■ 일시 : 2022. 10. 16(일) 09:30  
■ 장소 : 모교운동장  
■ 전화 : 062-224-1461  
조원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김광태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2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  
**프레이 오노도**  
island  
2022. 9. 30(금) ~ 10. 9(일)  
완도군 일원(완도읍, 청산면, 보길면, 생일면)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정완도 가을섬여행 추진위원회